

청소년의 유형집단 분류와 집단간 차이 분석*

—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

손 승 영**

김 용 학***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 III.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 IV. 조사결과
- V. 결론 및 제언

I. 머리말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아울러 청소년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청소년의 수적 증대로 인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태도 등에서 기성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인주의의 확산, 컴퓨터 문화, 랩뮤직, 뽀빠, 오락기 등으로 대변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현실문화연구회, 1992, 1993; 안영노, 1994)의 단면들에서도 우리사회에서의 세대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가 듣고 있는 노래의 가사조차 알아듣지 못하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하며, 컴퓨터와 더불어 하루의 상당 시간을 소요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는 '컴맹'이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잦다. 사회변화로 인하여 세대간의 차이가 심화되고 세대간의 관계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가 느슨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손승영, 1995). 단적으로 표현하면, 세대간의 갈등 증폭은 같은 시대에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와 이연숙교수, 사회복지학과의 김동배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문화의 정서적 특징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본 연구진들이 맡았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조교로서 자료수집과 조사 진행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인 전수영에게 감사한다.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대간의 이질적인 비동시성’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Kertzer, 1983; 한완상, 1991; 박재홍, 1992).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서구에서 경험한 바(잉글하트, 1983)와 유사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벌을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인하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남아있다. 유혹적인 사회환경은 팽배해 있으나(임광진, 1994) 틀에 박힌 수업방식과 방과 후에도 계속되는 입시위주의 시험지옥에서 이들은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문화적 혼돈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이나 생활은 그만큼 빨리 변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서 비록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타성적으로만 적응하는 ‘잠재적 중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조혜정, 1995).

이와 같은 세대간의 격차는 청소년의 연구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성세대의 기준이나 틀로 청소년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 문화는 ‘반성인(反成人) 문화’로 이해되기도 하며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매스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청소년집단을 문제집단인 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문화를 성인문화와 대조되는 ‘반성인(反成人) 문화’로서 보다는 성인문화와 성격이

다른 특징을 지니는 ‘비성인(非成人) 문화’로 이해하는 편이 더 옳은 것 같다. 이는 청소년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투영한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반항적인 요소마저도 쾌락이나 즐거움 추구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활영역과 관련지어서 심층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인구에 속하는 15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우리사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웃돌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또한 이들이 매우 민감한 연령층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급변하는 시기에 놓인 이들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무척 의의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 생활에 대한 시·공간 지리학time-space geography적 분석이라는 더 큰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토기를 거부하고, 청소년이 위치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하위집단간에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머어튼Merton의 “목적과 수단의 보유”여부에 따른 집단 분류 체계를 받아들여, 청소년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들 ‘유형 집단’ 사이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1. 문헌고찰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조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들은

조사대상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선정하거나 조사 방법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대상의 선정이나 조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집단이나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진행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경험 조사들(천정웅·이훈동, 1986; 장인태, 198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안귀덕, 1989; 이장호, 1989; 이종각, 1989; 황정규, 1989; 이문성, 1991;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94)의 경우에는 청소년 하위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전반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둘째, 구체적인 집단만을 다루고 있는 첫번째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 하위집단들에 대한 구분이 없이 광범위하게 청소년 전반에 걸친 특성만을 다루는 연구들도 다수가 있다(이주미·안선미, 1986;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삼성복지재단,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a, 1993b). 이들은 청소년 하위집단간에 존재하는 상이성을 예측하지 않고 조사에 임함으로써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환경이나 생활양식, 가치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만을 비교하더라도 이 두 집단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험 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정훈 외, 1986). 그러므로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의 부재나 혼재 또는 청소년의 이질적인 정체성 확립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

셋째, 청소년 하위집단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사한 조사들 중에서도 다수가 이론적 틀이나 체계적인 분석모형이 없이 조사에 임하는 실정으로 조사결과들이 서술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문화발전연구소, 1993)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해줄 뿐이며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상호작용을 밝히지 못하여서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설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존 조사들의 조사설계 과정에서 파생된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넷째, 청소년의 경험을 단편적인 주제로 선정하여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횡단적으로만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청소년의 한 평생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사실이다(윤진, 1993).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경험 조사들이 축적되어서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환경의 변화와 개인 또는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종단적인 연구가 어려울 때는 적어도 나이에 따른 경험의 축적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방법론에서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보다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기를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간주하며 청소년집단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연령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흔히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동일시되어 이때 겪는 갈등이나 방황 또는 저항으로 이들의 성격이 특징 지워진다고 믿음으로써 상당수의 연구들이 청소년의 문제나 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91,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a).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정서(가치관, 태도, 감정적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Petersen, 1988; 문화발전연구소, 1993; 박재홍, 1995). 이와 아울러 청소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이성식, 1995). 가족, 학교, 친구관계, 대중매체, 직장 등의 환경과 연결 지어서 청소년이 속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 가운데 각 하위집단의 경험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하위집단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문화의 정서적 특징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존의 청소년 연구가 지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청소년 하위집단간의 특성 차이를 규명함과 동시에 각 집단별로 달리 작용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밝혀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청소년의 분류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집단의 분류는 두 가지이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청소년 집단을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재수생, 무직의 다섯 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류기준은 청소년의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일치/불일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머어튼(Robert Merton, 1968: 194)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비록 머어

튼은 이러한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일탈의 원인 규명에 주력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 (또는 일치)’를 기준으로 집단의 유형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머어튼은 목표와 수단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서 다섯 가지 사회적응 유형을 구분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머어튼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의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를 ‘동조conformity’, 목표는 인정하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일탈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혁신innovation’, 기대된 문화적 목표와는 달리 그 목표를 약화시켜서 성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본인이 가진 수단을 사용하는 ‘의례주의ritualism’, 뚜렷한 목표도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서 사회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폐배주의retreatism’와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는 ‘반역rebellion’의 적응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머어튼의 다섯 가지 적응유형

적응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
동 조	+	+
혁 신	+	-
의례주의	-	+
폐배주의	-	-
반 역	±	±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자신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

한가와 이를 위하여 수단을 얼마나 잘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머어튼의 적응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는 ‘반역’은 기대하기 힘든 이유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네 가지 적응유형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III.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pre-test)는 1994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밝혀진 설문지의 취약점을 보완한 다음, 1995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설계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 청소년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때 총 사례수를 1,60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선정된 사례수는 비례 표본할당제를 따랐다.

〈표 1〉 각 집단별 예상되는 표본수

하위 집단	총 수	비율(%)	예상표본수
고등 학생	2,200,000	40.7	650
대학생 4년제	1,050,000	19.4	330
전문/교육대	400,000	7.5	120
재수생	300,000	5.6	100
근로청소년 *	1,050,000	19.4	300
무 직	400,000	7.4	100
계	5,400,000	100.0	1,600

* 근로청소년의 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매년 취업율이 35%로 대학진학률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서 4년제 대학생의 비율과 동등하게 배정하였다.

교육부 공식통계에(한국교육개발원, 1991) 기반하여서 하위집단별로 계획했던 표본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이들 집단간의 연령분포를 어느 정도 통제할 목적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을 17세에서 23세까지로 국한시켰다. 고등학교는 교육부(1994)에서 발간한 교육명부를 통해서 일반계/실업계 및 지역의 분포를 감안한 다음 무작위의 방식으로 총 10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승낙을 얻은 9개 학교에서 총 11개 학급의 고등학생 59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나,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78명의 응답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한국교육연감』에 명시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학교 중에서 4년제 대학 4개와 전문대학 5개를 지역을 안배하여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4년제 대학들 중에서 여자대학은 하나이며 나머지 3개 대학은 모두 남녀공학이다. 이들 대학에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서 총 280명을 조사하였다.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남학생 중심의 실업계/공업계 전문대학 두 군데와 여자 전문대학 두 군데 및 남녀공학 대학을 한 군데 선정하여서 총 18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높아서 총 459개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재수생의 경우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서 재수학원의 명단을 구한 다음에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서 강남, 강북, 강서, 강동의 각 구역에서 한 개씩의 학원을 선정하였다. 재수생의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이 학원에 직접 찾아가서 일 대 일로 면접하는 식으로 조사

를 진행하여서 학원당 20명 내지 30명의 재수생이 면접조사에 응한 결과 총 106개의 설문을 집계하였다.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수출공단의 목록(상공부, 1993)을 활용하여서 5개 회사에서 100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설계하였다. 생산직 외에도 서비스직 100명과 사무직 100명을 합쳐서 총 300명을 설문조사할 것을 계획했지만 회사들이 바빠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서 근로청소년 조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따랐다. 그 결과 선정된 회사 중 3개만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2개 회사는 아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서 원래 선정되지 않았던 공장을 방문하여서 근로청소년들을 면접하였다. 더욱이 이 연령층에 속한 근로청소년의 수적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올릴 수는 없어서 총 158명만을 설문조사하였다.

무직청소년을 설문조사하는 데는 근로청소년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난관이 뒤따랐다. 이들을 찾기 위해서 취미학원, 기술학원, 교회, 연고자를 통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직청소년 조사에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명을 설문조사하는데 그쳤다.

2. 청소년의 유형별 분류

이상과 같은 조사과정을 거쳐서 총 1395개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사용하여 컴퓨터 분석하였으며, 분포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한 단순 통계기법에서부터,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서 각 집단에서 어떠한 인구학적, 경제적, 정서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둘째, 머어튼의 유형분류에 입각하여서 각 개인이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형집단들을 구분한 다음에, 각 집단별로 나타난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때, 청소년이 지닌 목표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신이 부자가 된다면,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고 5-점 척도 문항에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중요한 편이다’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목표를 받아들이는 경우로 간주하여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모두 ‘목표가 없는 집단’으로 규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수단에 대하여 실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두 개의 5-점 척도 문항들을 만들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들(실력, 경제력)이 현재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를 질문한 다음에 “실력이 있는 편이다”와 “경제력이 있는 편이다” 각각에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두 가지 문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그런 편이다’ 또는 ‘정말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제도화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수단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하게 되었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가진 경우(동조), 목표와 수단이 모두 없는 경우

<그림 2> 유형집단의 분류

		목 표	
		없 다	있 다
수 단	없 다	패배주의 280명 20.1%	혁신 665명 47.7%
	있 다	외레주의 80명 5.7%	동조 370명 26.5%

(패배주의), 목표는 있으나 수단이 없는 경우(혁신), 목표는 없으나 수단이 있는 경우(외레주의)로 구분된 네 가지 집단에 속한 응답자의 분포는 <그림 2>에서 제시되어진 바와 같다. 그 결과, ‘혁신’집단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7%나 되며, 그 다음으로는 ‘동조’집단 (26.5%), ‘패배주의’집단 (20.1%), ‘외레주의’집단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유형 분포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요약된 바와 같다. 하위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수생에게서 목표는 있지만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근로청소년의 경우에 다른 하위집단과 차이가 커서 ‘패배주의’집단의 비율이 27.2%나 되어서 가장 높은 반면, ‘동조’의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IV. 조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분석에 포함된 1395명의 17세에서 23세까지 이르는 청소년 중에서 남자는 852명 (46.9%)이며, 여자는 739명 (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41.4% (578명)이고 대학생이 32.9% (459명), 재수생이 7.6% (106명), 근로청소년이 11.3% (158명)이며, 무직 청소년이 6.7% (94명)이었다. 이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84.5% (강남, 15.5%, 강북 37.4%, 강동 12.4%, 강서 19.2%)이고 수도권이 15.5%이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39.0%, 기독교 35.9%, 천주교 13.2%, 불교 11.2%, 기타 0.7% 순이었다.

<표 2> 하위집단의 유형별 분포

	고등학생		대 학 생		재 수 생		근로청소년		무 직	
	수	%	수	%	수	%	수	%	수	%
패배주의	126	21.8	78	17.0	15	14.2	43	27.2	18	19.1
혁 신	263	45.5	228	49.7	55	51.9	74	46.8	45	47.9
외레주의	32	5.5	29	6.3	5	4.7	7	4.4	7	7.4
동 조	157	27.2	124	27.0	31	29.2	34	21.5	24	25.5
계	578	100.0	459	100.0	106	100.0	158	99.9	94	99.9

대학생들 중에서는 64%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전문대가 32.0%, 기타가 3.9%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아서 49.1%, 자연계와 공학을 합쳐서 21.9%, 예체능계가 11.8%, 사범계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p < .001$), 남자는 자연계와 공학의 비율이 전체의 3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사범계가 14.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인문계가 66.7% (377명), 실업계가 31.7% (179명), 예능계가 1.2% (7명), 기타가 0.4% (2명)이다. 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종류로는 '4년제 대학'이라는 응답이 72.7% (3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도 전체의 11.6% (63명)되어서 예상보다 높았다. 이들에게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성적 때문에 (44.9%)'가 가장 높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34.6%)', '경제적 이유로 (11.5%)' 순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2명뿐이었다.

무직 청소년에게는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기술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취미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11.0%이며 나머지 7.7%만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또는 '가사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 무직 청소년의 경우도 대부분 하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수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현재의 재수생을 포함하여서 25.9%로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을 웃돌고 있다. 재수경험이 있는 이들의 재수년수는 최대 5년까지로 나타났으나, 95%는 2년 이하의 재수경험을 갖고 있다. 재수 경험에 있어서는 남

녀별로 차이가 있어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재수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남자의 30.3%가 재수 경험이 있는 반면, 여자는 21.8%만이 이에 해당했다. 재수 기간에 있어서는 남자가 약간 더 길어서 평균기간이 1.43년이나, 여자는 1.21년으로 약간 짧게 나타났다. 하지만 재수 경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중요한 차이가 없었다. 본 설문에 응답한 114명의 재수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는 단 두 명뿐이며, 84.2%인 96명은 4년제 대학에의 진학을 희망하며,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8.8% (10명), 교육대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4.4% (5명)로 나타났다.

근로 청소년에게도 공부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3분의 2에 해당하는 67.3%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단지 3분의 1에 해당하였다. 이들 중 과반수인 54.7%가 전문대학에의 진학을 희망하며 2.3%만이 4년제 대학을 바라고 있어서 고등학생이나 재수생과 비교하여서 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대로의 진학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남자 근로 청소년의 경우는 77.6%이지만 여자 근로 청소년은 61.1%만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p < .05$).

전체 응답자 중에서 현재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22.5% (311명)로 나타났는데 근로청소년 158명을 제외하면,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생이나 재수생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일에 소요하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36.2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 일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성별로는 여자의 25.7%가 돈벌이를 하고 있음으로서 19.1%만이 이에 해당하는 남자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p<.01$).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다양한데 가장 높은 비율은 학생 아르바이트로 23.9%이며, 그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22.5%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남녀별로 하는 일의 종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p<.001$), 남자는 생산직에 종사자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의 종사자 비

율은 여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돈을 버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장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37.8%이며, 그 다음이 ‘내가 쓸 돈이 필요해서’로 34.8%로 나타났다. ‘학비를 마련하거나 보태고자’가 13.2%이며, ‘집안의 생활비에 보태려고’도 9.1%였다.

<표 3> 하위집단별 청소년 주요 특성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생	근로	무직
평균 연령(세)	16.2	20.3	19.7	21.1	21.4
남 자	48.4	45.0	57.6	36.7	51.6
종 교					
없 다	33.1	42.0	34.3	49.7	47.3
불 교	13.5	8.3	6.7	14.2	11.8
재수 경험	—	36.5	—	10.7	44.3
돈벌이합	3.1	23.4	8.5	—	27.7
주당 근무시간	36.4	13.2	18.0	53.9	30.0
월평균소득(만원)	47.8	39.0	34.8	79.5	32.7
아버지 직업					
전문/행정관리	20.6	29.5	28.7	13.7	27.4
1차산업	1.3	4.0	5.3	30.8	3.6
한달 용돈(만원)	4.7	18.0	11.0	21.0	16.6
본인 층당	3.6	21.2	8.6	92.1	22.3

<표 4> 하위집단별 돈벌이하는 일의 차이 *

종 류	전체	남자	여자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	근로	무직
학생 아르바이트	23.9	26.1	22.5	—	62.5	55.6	—	4.0
서비스직	22.5	17.7	25.7	23.5	9.6	22.2	28.5	40.0
생산직	16.3	35.3	4.3	11.8	1.0	—	31.1	—
사무직	14.1	2.5	21.4	5.9	7.7	—	21.8	4.0
기타 아르바이트	12.7	15.1	11.2	41.1	16.3	11.1	2.0	52.0
판매직	9.2	0.8	14.4	5.9	1.9	11.1	15.9	—
기타	1.3	2.5	0.5	11.8	1.0	—	.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돈벌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국한된 결과임.

아버지의 직업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나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17.1%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판매직 (15.9%), 서비스직 (13.8%), 행정관리직 (12.7%), 전문기술직 (10.6%), 생산직 (7.7%), 농수산업 종사자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버지의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6%인데 반하여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인 55.8%나 되었다. 집안의 생활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거나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편’이거나 ‘매우 여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많게 나타났다.

이들의 한달 용돈은 평균 12만 3천원이며, 여자의 용돈이 남자에 비해서 약간 더 많으며,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의 경우에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용돈 중 본인이 벌어서 충당하는 비율은 평균 21.3%인데, 남자에게서 자신이 벌어서 충당하는 비율이 높으며, 근로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90% 이상을 자신이 벌어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용돈의 주된 지출내역에 있어서도 성별로 차이가 나서 (.001), 남자의 경우는 군것질, 간식 (21.6%), 술 또는 담배 (20.5%), 도서 (12.4%), 오락실 또는 노래방 비용 (11.9%)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군것질 또는 간식 (42.2%), 의상 (19.2%), 도서 (12.8%)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치관과 태도

청소년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관, 직업관, 여성관,

결혼관, 가족관에 대해 각각 3문항씩 총 15개의 5점-척도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국가관은 비교적 투철한 편이며, 직업관에 있어서는 내용 면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관심이 많은 편이며, 여성관은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비슷한 연령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응답의 결과가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47.2%의 응답자들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고 답하고 있고 5.2%는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지 1%의 응답자만이 ‘청소년들이 매우 뚜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뚜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21.3%)와 ‘그저 그렇다’ (25.3%)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 성실성, 통제에 대한 순응, 이성교제, 개방성, 대범성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 특성에 대하여 3문항씩 총 18개의 5점-척도 문항을 활용하여서 청소년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평균적 태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며, 돈을 잘 쓰는 편이며, 모범적이라고 믿고 있으나, 간섭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늦게 귀가함을 알리는 편이며, 자신이 별로 대범하지 않다는 믿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청 소 년 의 가 치 관

(단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저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4)	정말 그렇다 (5)	합 계	평균 점수 *
1	나는 될 수 있으면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노력한다	1.7	10.5	32.0	42.0	13.7	100.0	3.55
2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0.4	5.6	23.6	35.6	34.8	100.0	3.99
3	나는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6	5.3	30.9	36.5	25.7	100.0	3.79
4	직업선택시, 나의 적성보다는 보수가 더 중요하다	23.5	36.3	18.3	16.2	5.7	100.0	2.44
5	가능하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놀았으면 좋겠다	60.0	22.0	6.3	6.6	5.1	100.0	1.74
6	나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	2.0	3.4	9.4	29.4	55.7	100.0	4.33
7	남자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7	26.8	12.6	10.0	6.0	100.0	2.06
8	결혼 후 가사분담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8	10.0	18.3	27.3	40.6	100.0	3.91
9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1	15.8	45.9	23.1	10.0	100.0	3.17
10	남자전 여자전 나이가 들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	21.9	31.9	17.7	16.3	12.1	100.0	2.65
11	배우자 선택은 중매보다는 연애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1.9	5.1	19.3	39.9	33.8	100.0	3.98
12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14.9	25.5	20.2	25.1	14.4	100.0	2.98
13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0.2	0.3	2.5	11.9	85.0	100.0	4.81
14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도 자녀들이 솔직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1	5.4	14.6	38.9	39.0	100.0	4.07
15	가족은 나의 사생활에 많은 간섭이 된다	12.2	26.8	26.1	25.2	9.6	100.0	2.93

* 평균점수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정말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여서 계산하였다.

〈표 6〉

태도에 관한 문항

(단위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저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4)	정말 그렇다 (5)	합계	평균 점수*
1	나는 평소 행동에 있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성격이다	6.7	35.2	29.6	25.1	3.5	100.0	0.99
2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일할 때,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6.9	43.4	25.9	12.2	1.6	100.0	0.96
3	나는 남들을 위해서 즐겨 봉사한다	4.2	28.8	45.0	19.7	2.3	100.0	0.85
4	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4.2	19.5	32.7	33.7	9.9	100.0	1.02
5	나는 일을 할 경우 제책을 세워서 하나 하나 성실히 이루어 나간다	4.4	27.4	35.1	27.6	5.5	100.0	0.97
6	나는 돈을 잘 쓴다	4.3	18.0	33.4	36.1	8.2	100.0	0.99
7	나는 주위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2.2	13.3	48.2	31.6	4.7	100.0	0.82
8	나는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대로 살고 싶다	2.3	15.3	22.9	37.8	21.6	100.0	1.06
9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밤늦게 귀가한다	28.0	32.9	12.6	19.2	7.3	100.0	1.28
10	나는 이성친구들과 쉽게 친해진다	11.6	26.4	29.9	24.1	8.0	100.0	1.13
11	나는 이성친구와 데이트할 때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린다	14.0	33.8	27.9	18.5	5.7	100.0	1.10
12	혼전 성관계는 당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23.9	20.2	20.5	24.5	10.9	100.0	1.34
13	나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10.4	31.7	22.3	26.2	9.4	100.0	1.17
14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수용한다	2.5	16.5	39.5	37.1	4.4	100.0	0.87
15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7.7	30.9	31.0	25.1	5.4	100.0	1.04
16	나는 옷입는 스타일이 대담한 편이다	14.2	38.9	31.8	12.0	3.1	100.0	0.98
17	나는 모험하기를 매우 즐긴다	6.3	24.0	31.4	27.1	11.3	100.0	1.09
18	나는 남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하다는 말을 들곤 한다	8.3	28.2	37.7	19.4	6.3	100.0	1.02

* 평균점수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정말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여서 계산하였다.

3. 목표와 능력 평가

구가 높아서 남자와 여자 모두의 경우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과 화목한 가정에 대한 요

<표 7> 성별 및 하위집단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전체	성 별		하위집단				
		남 자	여 자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	근로	무직
안정된 직업	32.7	25.6	38.9	38.8	24.8	33.0	27.3	41.9
화목한 가정	24.4	30.3	19.2	17.1	30.0	19.8	41.3	20.4
존경받는 것	13.1	12.5	13.8	13.8	12.3	19.8	7.3	15.1
부자되는 것	10.6	13.9	7.8	12.4	8.5	11.3	10.0	10.8
봉사하는 것	6.0	6.9	5.3	7.1	5.8	5.7	4.0	4.3
목표 없다	2.7	3.6	1.8	3.9	2.7	.9	.7	1.1
종교인 되는 것	2.3	2.0	2.5	.9	3.4	4.7	4.0	—
기타	8.1	5.2	10.7	6.2	12.5	4.7	5.3	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p<.001)			

부자가 된다거나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우리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부정적인 입장은 단지 8% 정도인 데에 반해서 ‘중요한 편’ 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총 75%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중요시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조건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실력

과, 경제력과, 노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실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별로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을 하는 편이거나 매우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52.3%로 나타났다.

<표 8> 본인이 갖추고 있는 조건

	(%)					평 균 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	근로	무직
실력	3.7	20.3	51.0	22.8	2.3	2.99	3.04	2.85	2.95	3.06
경제력	8.8	25.5	47.6	16.2	1.8	2.93	2.60	2.78	2.66	2.70
노력	2.7	12.2	32.8	43.0	9.3	3.30	3.45	3.40	3.82	3.69

* 평균점수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정말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여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주위 사람들의 평가만큼 나 자신이 못 미친다’는 응답이 48.9%로 상당히 주위에서의 평가가 좋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 ‘주위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가 비슷하다’가 그 다음 순으로 42.3%이며, ‘주위의 평가보다 사실상 자신이 우월하다’는 응답은 단지 7.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매우 불만 많다’가 7.5%, ‘불만이 있는 편’이 35.3%인데 비하여 ‘만족하는 편이다’가 19.9%이며, ‘매우 만족한다’는 단지 1.9%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공부나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나날의 생활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단지 1.1%에 불과하며, ‘매우 많다’가

15.4%, ‘약간 많은 편’이 57.8%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쪽이 73.2%로 ‘스트레스가 없는 편’에 속하는 10.2%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인간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의 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보았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응답자에게는 과거의 학교생활에만 국한하여서 질문하였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62%에 달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과거의 학교생활과 현재의 학교생활 각각의 경우에 40% 정도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서 단지 20%의 응답자만이 이에 해당된다.

〈표 9〉 기관별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	불만인 편	그저 그럼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과거의 학교 생활	8.4	24.4	28.0	34.2	5.0
현재의 학교 (또는) 학원 생활	2.8	12.1	41.3	38.5	5.3
가 정	1.8	8.8	27.4	48.2	13.8
사 회	8.3	25.4	45.1	19.5	1.7

이성교제 경험에 대해서는 60.2%의 응답자가 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에 있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남자가 (64.6%) 여자 (56.6%)에 비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질문에서도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p < .001$), 남자의 경우에 4분의 1을 상회하는 25.5%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단지 5.6%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한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남자는 12.9%이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약 2배인 24.3%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이성교제 여부에 대해서는 총 46.3%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멋있는 젊음이에 대해서는 성격을 가장 중시 여겼다. 과반수인 54.4%가 성격을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실성 (25.9%), 신체 (5.0%), 멋 (4.6%), 지적인 것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들이 상당히 진실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고 83.7%이며, 이성문제가 11.3%이고, 경제적, 신앙, 장래진로 순이었으나,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성문제가 청소년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5. 유형별 집단간 태도의 차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자의식과 자아관이 유형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18가지 문항을 이용하여 다양한 태도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이들 태도변인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이론적 차원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 방법 중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고유값과 추출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정도가 제시된 결과는 29%인 두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가 넘으며, 이 중에서 50% 이상인 변인도 4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네 개의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각 요인의 고유값을 비교해 보면, 요인 1의 고유값이 2.66, 요인 2가 1.80, 요인 3이 1.72, 요인 4가 1.33으로 요인 1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인 2와 요인 3은 중요도가 유사한 편이었으나, 요인 4에 비해서는

중요하게 나타났다.

요인 1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은 돈을 잘 씀, 이성과 쉽게 친해짐, 옷입는 스타일이 대범함, 개성이 뚜렷함 등으로 ‘개성성’이라고 요인 이름을 정하였으며, 요인 2와 관련된 주요 변인은 모범적이지 아님과 봉사를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서 ‘비모범성’으로 이름을 정했다. 요인 3은 전화왔고 밤늦게 귀가함과 어른들 간섭이 싫은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아서 ‘비순응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데이트시 남의 눈 꺼리지 않음과 평소 행동에 있어 남을 의식하지 않음이 주요 변인이므로 ‘타인비의식성’으로 칭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서 앞서 만들어둔 청소년 유형을 모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이 모조변인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노바 분석과 동일하다). 첫 번째 요인인 ‘개성성’에 있어서는 유형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p < .001$) 목표도 있고 수단도 있는 ‘동조’의 경우에 가장 개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목표는 뚜렷하지 않지만 수단이 있는 경우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실력이나 경제력이 있을 때 보다 개성이 뚜렷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요인인 ‘비성실성’은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는 ‘폐배주의’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는 있지만 수단이 없는 경우여서 수단이 없을수록 ‘비모범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p < .001$). 이상의 두 요인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수단이 있는 경우에 수단이 없을 때에 비해서 더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모범적임을 알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인 ‘비순응성’은 두번째 요인인 ‘비모범성’과 유사하게 유형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단이 없을수록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에 불응하

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동조’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장 강하게 믿고 있으며, 또한 부모의 통제에 잘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p < .05$). 네 번째 요인인 ‘타인비의식성’에 있어서

는 ‘패배주의’의 경우에 다른 유형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조’와 ‘의례주의’가 유사하게 낮으며, 목표는 있지만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보다도 약간 더 낮게 나타나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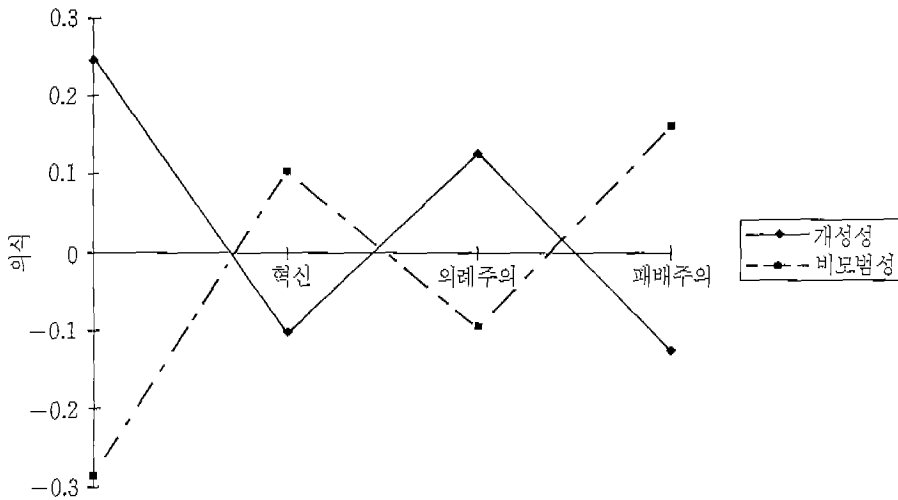
〈표 10〉 회전된 요인 패턴 (Rotated Factor Pattern)

	요인 1 ‘개성성’	요인 2 ‘비모범성’	요인 3 ‘비순응성’	요인 4 ‘타인비의식성’
태도 1	0.09521	-0.03991	0.27237	0.61578 *
태도 2	-0.12206	0.27427	0.44680	-0.03325
태도 3°	-0.18771	0.62952 *	0.18052	0.07685
태도 4	0.49250 *	0.23296	0.38568	-0.26088
태도 5°	-0.15587	0.51022 *	0.19485	-0.17536
태도 6	0.61210	0.18036	0.12030	-0.15768
태도 7°	0.04001	0.64214 *	0.16758	0.16308
태도 8	0.16701	0.04328	0.52464 *	0.06347
태도 9	0.18519	-0.00460	0.54569 *	0.02363
태도 10	0.60713 *	-0.10398	0.12973	0.13836
태도 11°	0.06895	0.08298	-0.16075	0.72195 *
태도 12	0.26135	0.11985	0.45439 *	0.07636
태도 13°	0.55411 *	0.25403	-0.41194	0.04012
태도 14	-0.07705	-0.52106 *	0.18724	0.08485
태도 15	0.51941 *	-0.28845	0.00206	-0.00984
태도 16	0.56447 *	-0.08545	0.20172	0.32429
태도 17	0.47881 *	-0.21869	0.24781	0.21683
태도 18	0.57239 *	-0.24287	0.23793	0.27716
eigenvalue	2.66	1.80	1.72	1.32

〈표 6〉에 제시된 태도 변인들을 그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변인들이 모두 ‘가장 전통적’이거나 ‘가장 바뀌지 않는부분’을 1점으로 하고 ‘가장 진보적’이거나 ‘가장 바뀌고 있는태도’는 5점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변인을 리코드하였다.

° : 리코드한 태도 변인임.

* : 요인 부가치 > .45



<그림 3>

청소년 유형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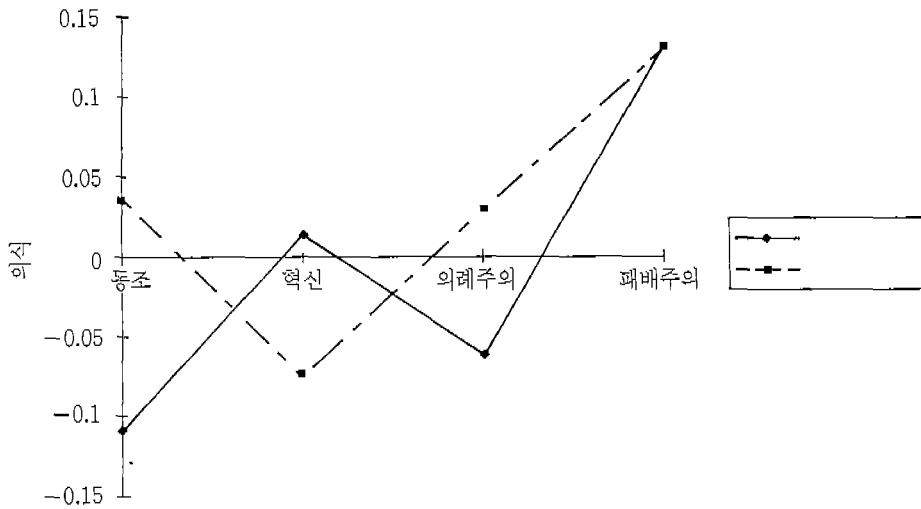
이상 요인별로 나타난 유형집단들간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각 개인의 수단 소지 여부가 목표 유무에 비해 청소년의 태도나 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단이 있는 집단에서는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유형집단에 비해서 더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부모의 통제에 순응적이고, 타인들이 자신을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동조’의 경우와 ‘폐배주의’ 사이에서 가장 큰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조’집단의 경우는 가장 개성이 뚜렷하며, 모범적이며, 통제에 순응적이며, 평소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배주의’ 집단은 가장 개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자신이 비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통제에도 가장 순응하지 않는 집단이고 또한 평소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을 가장 의식하지 않는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다. 목표는 있지만 수단이 없는 ‘혁신’집단에서는 개성은 별로 뚜렷하지 않으며, 모범적이지도 않은 편이고, 통제에도 순응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난 반면

에, 평소 행동에서는 타인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단은 있지만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의례주의’집단은 다른 유형집단에 비해서 개성은 약간 뚜렷한 편이며, 자신이 평소에 모범적인 편으로 여기고 있으며, 통제에도 순응하는 편이며, 평소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을 의식하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모든 행동에서 중도적이면서도 무난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성향이 보인다. ‘의례주의’에서는 ‘폐배주의’ 집단에 비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조’집단에 비해서는 자신감의 정도가 낮으며, 타인이 보기에 ‘똥다고’ 할 수 있는 모험성이나 대범함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각 요인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측한 대로 하위집단의 변별력은 유형집단의 변별력보다 낮게 나타나 ‘개성성’과 ‘비모범성’에 있어서는 하위집단별로 전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모범성과 타인 비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모범성’에 있어서는 무직이 스스로를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 가장 비모범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p < .001$). 한편 ‘타인비의식성’에 있어서는 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하위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 <$

001). 이는 또한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로청소년의 경우여서 이들이 평소 행동에서나 데이트를 할 경우에 다른 하위집단들에 비해서 타인을 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청소년 유형집단

이상 유형집단별과 하위집단별로 각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 하위집단별로의 구분했을 때 보다는 유형집단별로 살펴본 결과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형별 분석이 매우 의의 있는 작업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감안하여서 하위집단별 및 유형집단별로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유형집단간의 차이는 특히 유의미하다. 이는 청소년 집단을 단순히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근로청소년 등으로 구분할 때와 달리 각 하위집단 내부에서 예상되는 다양성까지도 감안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한 것은 각 집단의 특성 차이를 비교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가능케 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또한 수단 소지여부가 목표의 유무에 비해서 청소년의 특성차이를 더욱 크게 만드는 사실도

본 조사결과로부터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 입안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이 실력이나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수단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태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모범적이라는 사실은 청소년에게 수단의 소지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조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므로, 청소년 입장에서는 실력을 각기 달리 정의할 여지가 크다.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에게 실력이란 학업에 국한 될 것이며, 근로 청소년에게 실력이란 직장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청소년에게 어느 쪽으로든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더욱이 목표도 있고 수단도 가진 '동조' 집단의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목표의식에 대한 고취 또한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본 조사에서는, 첫째, 청소년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끔 하여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각자가 그 목표를 위하여 어떻게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

는 생활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진로개발 프로그램 *career development program*이 시급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나 계수학원, 취업학원 또는 각 상담소에서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인력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게 된다.

둘째, 목표도 있고 수단도 소지하고 있는 '동조'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모범적이면서도, 옷을 대범하게 입는 것을 즐기며, 본인의 개성이 뚜렷하다고 믿고 있고, 또한 돈 쓰기를 즐기는 점은 청소년 전반에서 나타나는 신세대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개성이 뚜렷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오늘날의 청소년의 모습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는 또한 청소년이 대중문화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정서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모니터하고 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게 된다. 또한 상업화된 시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청소년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 개발, 담당기관의 증설 및 지도자 양성 (이용교, 1993), 사회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1994. 『한국교육연감』.
문화발전연구소. 1993. 『청소년 문화정서지표 조

사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구보고서
92-6.

- 박재홍. 1992.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38집. 문학과 지성사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 pp. 651~684.
- 삼성복지재단. 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삼성복지재단 청소년연구위원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초록집.
- 상공부. 1993. 『한국공단총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공단 청소년 문화현상연구』.
- 손승영. 1995.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제 1장. pp. 23~55.
- 안귀덕. 1989. “농촌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19~182.
- 안영노. 1994. “록 카페를 통해서 본 젊은이 문화” 연세사회학. 제14호.
- 윤진. 1993.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제1장. pp. 1~18.
- 이문성. 1991. 『농촌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제29집. pp. 617~50.
- 이용교. 1993. 『한국청소년 복지의 현실과 대안』. 온평천사원출판부.
- 이장호. 1989. “공단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307~394.
- 이종각. 1989. “광산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83~306.
- 이주원·안선미. 1986. 『사회변동과 세대간의 가치관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소 연구보고서 No.17.
-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 임광진. 1994. 『청소년 문화운동의 현장』. 집문당.
- 잉글하트, 로버트. 1983. 『조용한 혁명』 (정성호 옮김). 종로서적.
- 장인태. 1987.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 조혜정. 1995. ““등교거부”의 후기산업사회적 의미” 『학업중퇴자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초록집.
- 천정웅, 이훈동. 1986. 『대학생의 활동욕구와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소 연구보고서 No.18.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2.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최정훈 외. 1986. 『고교생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한 문교부에 제출한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1991.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3a. 『청소년문제론』.
- _____. 1993b. 『청소년문화론』.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 _____. 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_____. 1991. 『청소년 범죄행위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_____. 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갈등에 관한 연구” 『사상』 3(1).
- 현실문화연구회. 1992. 『압구정동 :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 _____. 1993.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
- 황정규. 1989. “도시 아파트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7~11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 Inc.
- Kertzer, David.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 Kroger, Jane. 1989. Identity in Adolescence : The Balance Between Self and Oth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Merton, Robert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Petersen, A.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 583~607.